

아라비아반도
NEWSLETTER국가 소개. 예멘.
행운의 아라비아에서 전쟁의 터널 속으로

홍해의 입구에 위치한 예멘은 고대에 '행운의 아라비아'(Arabia Felix)로 불리며 향신료 무역을 통해 부를 누렸다. 그러나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석유 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패로 인해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2015년 시작된 내전으로 국가 기반 시설이 초토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상황이 역전되었다.



2011년 민주화 혁명으로 33년간 통치한 살레 대통령이 실각됐지만, 사회 혼란은 지속되었다. 예멘 북부를 장악한 시아파 후티 반군이 2015년에 내전을 일으켰다. 남부에서는 남예멘의 재분리를 요구하는 분리주의자들과 혼란을 틈타 침투한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다.

유엔난민기구의 2022년 통계에 의하면 7년간의 전쟁으로 430만 명의 국내 실향민(IDP), 60만 명 이상의 해외 이주 난민이 생겼다. 3천만 인구 중 2,340만 명(인구의 73%)이 생존을 위해 외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멘은 오랜 시간 동안 자유와 평화를 위해 투쟁했지만 전쟁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감사한 것은 후티 반군과 정부를 대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휴전 협정 기간(2022년 10월 종료)이 지났지만, 아직도 은밀하게 평화를 위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기를 기도한다.

전쟁 속에서 여성의 자유는 더욱 제한되어 가고 있다. 한 예로 남성의 동행 없이는 외출할 수 없다. 이것은 여성이 학교나 직장에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남성과 동행으로 인해 더 많은 교통비가 드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회 상황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예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사회적 지혜와 합의를 갖도록 기도하자. 여성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교적, 사회적 관습이 폐해지도록 기도하자.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1년 말까지 전쟁과 기아, 의료 부족과 물 위생 문제로 377,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쟁으로 어린이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5세 미만의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230만 명 유아들을 위해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한국은 봄을 맞아 개나리부터 진달래, 벚꽃이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예멘 북부도 이즈음에 복숭아와 살구꽃이 아름답게 핀다. 해마다 와디(계곡)에서 봄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올해는 예멘에 풍족한 비가 내려 농부들이 채소와 과일,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수년간의 전쟁 피해로 예멘 인구의 대부분이 가족들을 위한 매일의 식량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쟁의 터널 속에 갇혀있는 예멘에도 3월 23일부터 라마단 금식월이 시작된다. 많은 예멘 사람들이 코란을 읽고 기도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일 것이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자. 예멘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도록 기도하자.